

교육 통해 목장 현실, 문제점, 발전방향을 짚어보다



유창용
전북 고창 근용목장

1983년, 5마리의 송아지로 시작된 우리 목장은 부모님의 노력 끝에 일평균 납유량 2톤, 육우와 한우를 포함해 약 280두의 소가 있는 목장으로 발전했다.

지금처럼 시설과 장비들이 자동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장을 성장시켜놓으신 부모님이 정말이지 존경스럽다. 어렵게 일궈놓은 목장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후계낙농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목장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정확하고 체계화 된 정보를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찰나에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계낙농인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창지역의 청년낙농인과 함께 신청하게 되었다.

이 교육은 작년에도 받고 싶었으나 조사료 수확시기와 교육일정이 맞물리는 바람에 작년에는 불참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쉬웠었다. 그래서인지 이번 교육에 더욱 욕심이 생겼다. 농장 일을 허겁지겁 마무리하고 부모님께 잘 다녀 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농장을 나서면서도 무더위에 쌍둥이를 분만한 소가 걱정돼서 발걸음이 잘 안 떨어졌다. 아픈 소를 뒤로 하고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게 맞는지... 나에게, 그리고 우리목장에 똬이 정말 중헌지... 그래서 토씨 하나 빠뜨리지 말고 더욱 더 열심히 배워와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육장으로 오게

됐다. 교육생 중에는 안면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 SNS로 알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처음 본 사람들이 더 많아서 교육초기에는 서먹서먹했다. 하지만 조별 교육을 통해서 금세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뭉쳐지지 않도록 여러 지역의 사람들로 조를 편성해주는 협회측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님께서 현재의 우리나라 낙농현황 중 유제품 수입량 증가와 국내 생산량 감소 등 부당한 FTA 협상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 해주셔서 이해가 쉬웠다. 앞으로 치즈와 요구르트, 생크림이 주력상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낙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목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원유생산에 집중된 우리목장의 현실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려운 낙농업 현실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해주셔서 후계낙농인으로서 힘이 되었다.



애그리텍이앤씨 나현채 대표님은 생소할 수 있는 회계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다. 특히 재무제표를 설명하시면서 시계와 구두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과 비교·설명 해주셔서 눈높이 과외 교육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 이후 본격적인 낙농경영에 필요한 목장회계 실무를 배우기 위해 가상으로 목장을 설립해 보았다. 시작부터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후계자라는 특성상 자산이나 신용 면에서 그렇게 많은 자금을, 그것도 저금리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가능한 임대사업을 활용해 운영 가능한 목장을 설립하는 방법을 고민했고,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속한 조에서 세운 목장의 자산과 재무상태를 다른 조원들의 목장들과 비교해 보며 각자의 문제점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보완 및 해결해 나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목장경영의 큰 틀을 이해하고 현금의 흐름과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경영의 기본이 되는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교육을 받는 동안 꾸준히 들었던 생각은 우리 목장의 재무상태는 어떨까? 자산과 부채는 어느 정도 일까? 자본과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 였다. 가상으로 목장을 만들며 자본금 부족으로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보여지는 것에 비해 많은 부채를 떠안고 계셔서 부채와 이자탕감을 평생 업처럼 생각하며 살아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힘들게 일궈 놓으신 목장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후계낙농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회계를 통한 체계화 된 목장 경영이 필수라는 것을 이번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목장의 수익을 저해시키는 요소들을 방지 및 제거하고 목장회계를 통해 현재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일이 귀찮을 수도 있다.

또 기록을 한다고 눈앞에 수익이 바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서 등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지금 하는 사소한 실천들이 어찌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해보려고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

